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의 모국관계 연구*

김 혜 련 (전남대학교)
<jinhuilian2002@hanmail.net>



국문요약

다민족·다문화국가 말레이시아에는 약 640만 명의 화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24.6%를 차지한다. 말레이시아 화인은 대부분 중국 푸젠(福建), 광둥(广东), 광시(广西), 하이난(海南)지역 출신이며,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화인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와 모국의 연관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와 모국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말레이시아 화인은 비록 현지적응을 통해 주류사회에 진출하였으나, 여전히 화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국문화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국지향성을 기반으로 화인은 비록 모국과의 정치적 연계는 미약하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모국인 중국과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모국과의 이러한 경제 및 사회·문화적 관계는 향후에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 말레이시아, 화인, 모국지향성, 모국관계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2013S1A5B8A01055017).

I. 서론

1. 문제제기

글로벌 시대가 도래되고 초국적 인구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모국(homeland)을 떠나 거주국(host country)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로 이주한 이들은 다양한 역사적 경로를 통해 세계 각국에 분산(分散)되어 있으면서도 같은 혈통과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초국적 활동이 일상화 되고 있는 이주의 시대에 디아스포라가 행위자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막강한 경제파워와 초국적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는 화인디아스포라는 가장 전형적인 디아스포라집단이다. 180여 개 국에 흩어져 약 4,543만 명에 이르는 화인디아스포라는 73%가 동남아시아에 정착하고 있으며(中国侨办), 그 중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지역에서 싱가포르를 제외한 화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말레이시아 인구조사 보고에 의하면, 2010년 기준 말레이시아에는 약 640만 명의 화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24.6%를 차지한다(中国侨网). 화인의 말레이시아 이주는 당나라시기부터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으나, 본격적인 대규모 이주는 명나라시기부터 시작되었다. 말레이시아 화인은 대부분 중국 푸젠(福建), 광둥(广东), 광시(广西), 하이난(海南)지역 출신이며, 그들은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중심으로 화인사회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다민족·다문화국가 말레이시아에서 화인디아스포라는 현지적응을 통해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주류사회에 진출하였다. 비록 그들은 말레이시아 국민으로서 확고한 국민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화교협회·화교학교·화교신문사 등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더불어 민족정체성 고양과 민족문화 발전을 기반으로 모국과의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화인에게 있어서 중국이라는 모국은 국민적 이념이라기보다는 자신이나 선조의 기억을 간직한 고향으로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상상의 공동체’이다(임채완 2008, 251).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국에 대한 친밀감을 잃지 않고, 모국이 보다 발전하고 성장하길 원하는 심리적 양상도 표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는 오래전부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영역에서 중국과 밀접한 모국관계를 이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말레이시아 화인은 모국의 정치적 변화에 적극 참여하여 항일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모국건설에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현지 거주국에서 화교학교를

설립하여 중국어 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모국과의 문화적 연계를 이어왔으며, 1974년 양국 수교이후에는 경제, 문화적 연계는 물론 인적연계도 활성화시켰다. 다시 말해, 말레이시아 화인은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 걸쳐있는 ‘경계인’으로서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모국과의 연계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함께 거주국 내에서 주변화되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부문에서 모국과의 연계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초국적인 글로벌시대, 화인디아스포라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거주국 현지적응이나 주변화는 물론이고, 문화정체성의 성격과 모국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모국과의 연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와 모국의 연관성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와 모국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과 모국어, 모국문화 보존 실태를 통해 그들의 모국지향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말레이시아 화인의 모국관계 유지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말레이시아 화인과 모국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가 모국인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주로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 모국어·모국문화 보존실태, 모국과의 연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2014년 2월 8일부터 3월 25일까지 말레이시아 화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14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무응답하였거나 설문문항에 불성실하게 기입된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119부만을 실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	54	45.4	혼인 상태	기혼	48	40.3
	여	65	54.6		미혼	70	58.8
					사별	1	0.8
직업	전문직	13	10.9	이민 세대	2세대	72	61.5
	자영업	41	34.5		3세대	29	24.8
	공무원	1	0.8		4세대	14	11.8
	사무직(회사원)	28	23.5		5세대	4	3.4
	서비스	17	14.3	종교	이슬람	3	2.5
	농업	5	4.2		기독교	48	40.7
	생산직	6	5.0		불교	50	42.4
	가정주부	6	5.0		도교	6	5.1
	기타	2	1.7		민간신앙	5	4.2
					기타	7	5.8
연령	10대(10~19세)	11	9.2	학력	초등학교 졸업	2	1.7
	20대(20~29세)	26	21.8		중학교 졸업	3	2.5
	30대(30~39세)	23	19.3		고등학교 졸업	37	31.1
	40대(40~49세)	25	21.0		전문대 졸업	17	16.0
	50대(50~59세)	16	13.4		대학교 졸업	47	39.5
	60대(60~69세)	12	10.1		대학원 졸업	4	3.4
	70대(70~79세)	6	5.0		무학	7	5.9
합계	119(100%)						

Ⅱ. 이론적 검토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가 모국인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디아스포라 모국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디아스포라의 ‘집합적 기억’, 모국지향성 및 모국관계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선행연구 검토

전 세계 4,500여만 명의 화인 중 약 73%는 동남아시아에 정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말레이시아 화인은 현지화에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말레이시아 화인은 거주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표적 이주민 집단이다.

한국학계는 1990년대부터 화인디아스포라에 관심을 보여 왔으나, 말레이시아 화인 관련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화인에 대한 한국학계의 접근은 화상자본, 화인네트워크, 종족폭동에 그치고 있다(홍재현, 2008). 이러한 연구는 화인의 말레이시아 유입 역사, 현지사회 적응 과정, 화상자본 축적에 초점을 두어 말레이시아 화인사회의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더불어 말레이시아 종족폭동에 주목하여 화인과 현지 원주민과의 민족갈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현재 한국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화인 연구는 초보적이고 개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화인에 대한 중국학계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말레이시아의 화인정책으로부터 화인의 정치참여 활동, 경제적 성과와 화상 네트워크, 거주국에서의 현지적응 실태와 민족공동체의 형성, 화문(華文)교육과 민족문화 계승, 화인의 사회적 지위와 토착민과의 민족관계 등 화인 관련 다양한 주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骆莉, 2002; 何西湖, 2004; 许梅, 2004; 廖小建, 2008; 郑一省·叶英, 2011; 王焕芝·洪明, 2011; 陈俊林, 2012). 그러나 말레이시아 화인을 대상으로 삼은 대부분 연구는 현지 거주국에서의 화인 활동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그들과 모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컨대, 말레이시아 화인 관련 기존연구는 대부분 화인 자본이나 네트워크, 거주국에서의 적응 실태 등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뿐, 조국가 이주민 집단으로서 화인과 모국의 연관성 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인연구는 단순히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화인 문제를 분석하였기에 그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화인과 모국인 중국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모국이 말레이시아 화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로 작용하고 있고, 그들은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어떤 형식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더불어 어떤 방식과 경로를 통해 모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접근은 화인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2. 디아스포라의 ‘집합적 기억’과 모국 연계

스토커(Stalker)가 지적했듯이,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도 한 공간에서만 불박여 있는

것이 아니라(김보영 2004, 15),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주를 선택하게 된다. 국제이주가 활성화됨에 따라 민족분산 혹은 민족이산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디아스포라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최근에는 국제이주, 이주노동자, 민족정체성, 문화공동체, 문화변용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프란(Safran)은 디아스포라의 특징을 6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즉, 선조가 원거주지로부터 둘 또는 그 이상의 외국으로 분산된 이산성, 원래의 모국 땅에 대한 집합적 기억, 또한 거주국에서 완전히 수용되지 못하는 고립감과 소외감, 궁극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갈려는 귀환의식, 모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는 집단적 헌신 정신, 그리고 모국과의 관계에서 연대를 중요시하는 것이다(William Safran 1991, 83-84). 다시 말해, 디아스포라는 초국가적 활동을 영위한 이주민 집단으로서,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국과의 연대를 유지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디아스포라가 모국을 떠나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국에 대한 기억과 연대는 쉽게 단절되지 않는다.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은 자신 또는 선조의 고향으로부터 파생된 심리적 유대이다. 이러한 유대로 인해 디아스포라는 모국과의 연계를 유지하게 되며, 모국의 언어를 습득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등 방식으로 모국과의 연관성을 구축하게 된다. 디아스포라에게 있어서 모국사회는 그들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며, 다른 한편 모국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국에 대한 기억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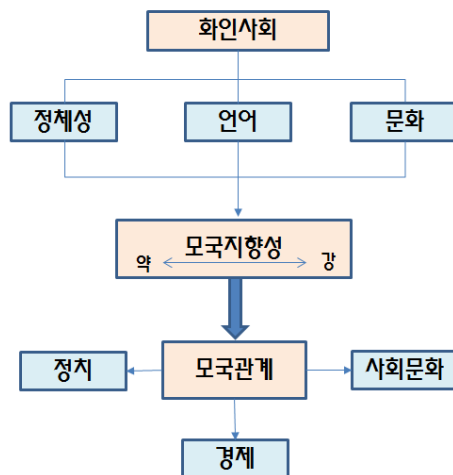
디아스포라집단이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공유하고, 모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된다. 우선, 민족정체성 유지는 모국과의 연계를 지속하는 전제조건이다.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존재를 주변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규정하고 설명하는 용어로, 민족정체성은 특정 민족이 가지는 고유특성이나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소속의식”을 지칭한다(정영훈 2010, 3). 따라서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다음, 모국어를 사용하고 모국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모국 언어 구사능력은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필수도구이며, 디아스포라가 모국과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디아스포라는 모국어를 사용함으로써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더불어 전통명절, 민족문화로 나타나는 모국 문화 계승은 디아스포라 집단이 거주국에서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상징화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선조로부터 계승한 풍습과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구체화시킨다. 마지막은 모국과의 직·간접적 교류와 연대이다. 모국과의 연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표출된다. 예컨대 모국과의 인적 왕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류 등이다.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모국어를 사용하며, 모국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모국과의 연계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면, 모국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류는 직접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로서, 현지적응을 통해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모국의 언어를 습득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더불어 모국에 있는 가족과 빈번하게 왕래함으로써 모국과의 연대를 유지하는 이중적 양상을 나타낸다. 거주국에서의 현지화와 모국과의 유대 증진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가 초국가적 활동을 영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며, 더불어 그들이 세계화시대에 부합되는 초국가적 집단으로 부상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3. 연구 분석틀

이 연구는 말레이시아 화인사회와 모국인 중국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선 말레이시아 화인사회의 현황, 즉 민족정체성 유지 실태, 모국어 및 모국문화 보존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화인사회의 모국지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디아스포라집단의 모국지향성이 강할수록 모국과의 연계는 밀접하게 나타나며, 모국지향성이 약할수록 모국과의 연계는 미약하다. 더불어 이러한 모국지향성을 기반으로 화인사회와 모국과의 연관성을 정치적 연계, 경제적 연계, 나아가 사회·문화적 연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말레이시아 화인의 모국관계 분석틀

Ⅲ.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의 모국지향성

말레이시아 화인과 모국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주국에서 어느 정도로 모국적인 요소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모국적인 요소를 많이 유지하고 모국지향성이 강할수록 화인과 모국과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다. 다음은 설문조사를 통해 말레이시아 화인의 민족정체성과 모국어, 모국 문화 보존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모국지향성을 살펴보았다.

1. 민족정체성

국가의 장벽이 무너지고 초국적 행위자의 활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행위자들의 상호 연관성도 심화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자신들이 정착한 거주국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모국과의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두 국가 모두를 포함하는 초국가적 삶을 살게 된다. 모국과의 연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민족정체성이다.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디아스포라집단의 모국지향성은 강하게 나타나며, 더불어 모국과의 연계도 더욱 밀접해진다. 말레이시아 화인의 모국지향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들이 거주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민족정체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2〉 말레이시아 화인 민족정체성 관련 평균 및 표준편차

질문항목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나는 중국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3.96	.677	114
나는 중국 전통명절(춘절, 추석, 단오 등)을 잘 지킨다.	3.60	.761	114
나는 화인들이 중국문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87	.735	114
나는 중국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본다.	3.14	.901	114
나는 화인 친구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 좋다.	3.37	.934	114
나는 화인 사회단체(협회, 동향회 등)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3.67	.795	114
나는 화인과 기타 종족 간의 통혼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74	.883	114

민족정체성 관련 질문항목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표-2〉에서 나타나듯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국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중국 전통명절을 잘 지킨다”,

“화인으로서 중국문화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본다”, “화인 친구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 좋다”, “화인사회단체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등이다. 즉, 말레이시아 화인은 거주국의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화인과 기타 종족 간의 통혼을 장려해야 한다”라는 질문항목에서는 평균이 2.74로 나타나, 말레이시아 화인이 종족 간 통혼보다는 여전히 화인 간의 결혼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인이 비록 거주국 국적을 취득해 말레이시아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화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요소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말레이시아 화인이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다. 다민족국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민족 집단은 말레이시아인, 화인, 인도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원주민과 화인의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민족을 원주민(Bumiputra)과 비원주민(Non-Bumiputra)으로 구분하여 원주민을 우대하는 신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차별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화인들은 그들만의 정당을 설립하고 언론사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민족교육을 발전시켜 화인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화인의 민족정체성은 점차 강화되었으며, 그들은 비록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여전히 말레이시아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그들만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2. 모국어

국제이주를 통해 거주국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한 디아스포라집단에게 있어서 언어능력은 현지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필수도구이며(김혜련 2014, 208), 동시에 이주민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모국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화문교육이 활성화되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화인들의 중국어 의사소통 수준은 기타 동남아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중국어를 빈도 높게 사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화인의 중국어 수준을 조사한 결과, <표-3>에서 나타나듯이 32.8%(39명)가 “조금 잘함”, 15.1%(18명)가 “매우 잘함”이라고 응답하였고, 27.7%(33명)가 “매우 못함”, 15.1%(18명)가 “조금 못함”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화인은 9.2%(11명)이다. 즉, 중국어를 “잘하는(‘조금 잘함’과 ‘매우 잘함’ 포함)” 화인 비율(47.9%)이 “못하는(‘조금 못함’과 ‘매우 못함’ 포함)” 비율(42.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3〉 말레이시아 화인의 중국어 수준

질문사항	매우 못함	조금 못함	보통	조금 잘함	매우 잘함	전체
빈도(명)	33	18	11	39	18	119
비율(%)	27.7	15.1	9.2	32.8	15.1	100

더불어 말레이시아 화인이 모국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45.3%(54명)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49.6%(59명)가 “말레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5.0%(6명)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중국어를 사용하는 비율(45.3%)이 말레이시아어 사용 비율(49.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다민족 국가에서 화인이 그들만의 언어를 배우고 빈도 높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표-4〉 말레이시아 화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질문사항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영어	전체
빈도(명)	59	54	6	119
비율(%)	49.6	45.3	5.0	100

3. 모국 문화

디아스포라가 현지 거주국에서 어느 정도로 모국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는가는 그들의 모국지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화인이 거주국에서 선호하는 문화와 음식, 선호하는 혼례식 및 장례식 등을 조사하였다.

말레이시아 화인이 선호하는 문화를 조사한 결과, 11.9%(14명)가 “말레이시아 문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32.2%(38명)가 “중국 문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2.5%(62명)가 “말레이시아와 중국 문화 모두”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거주국과 모국 문화를 모두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거주국 문화에 비해 말레이시아 화인은 여전히 모국 문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말레이시아 화인이 선호하는 문화

질문사항	말레이시아 문화	중국 문화	말레이시아, 중국 문화 모두	기타	전체
빈도(명)	14	38	62	4	118
비율(%)	11.9	32.2	52.5	3.4	100

말레이시아 화인의 모국 문화 유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선호하는 음식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를 조사하였고, 더불어 화인들이 혼례식 및 장례식을 치르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선호하는 음식에서 28.6%(34명)가 “말레이시아 음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33.6%(40명)가 “중국 음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5.1%(18명)가 “서양 음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에서 즐겨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23.5%(28)가 “말레이시아 가구”, 34.4%(41)가 “중국 가구”, 12.6%(15명)가 “서양식 가구”로 응답하였다. 혼례식에서는 18.6%(22명)이 “말레이시아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28.8%(34명)가 “중국식”, 22.0%(26명)가 “서양식” 혼례를 치른다고 응답하였다. 화인들이 치르는 장례식에서는 16.9%(20명)가 “말레이시아 장례식”, 43.2%(51명)가 “중국식”, 3.4%(4명)가 “서양식”으로 장례식을 치른다고 응답하였다. 즉, 말레이시아 화인은 말레이시아 현지 문화보다 모국인 중국문화를 더 선호하며, 음식·가구, 혼례식 혹은 장례식 등 일상생활에서도 모국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말레이시아 화인이 선호하는 음식, 가구, 혼례식, 장례식

질문사항	말레이시아식	중국식	서양식	기타	전체
음식	34(28.6)	40(33.6)	18(15.1)	27(22.7)	119(100)
가구	28(23.5)	41(34.4)	15(12.6)	35(29.4)	118(100)
혼례식	22(18.6)	34(28.8)	26(22.0)	36(30.5)	118(100)
장례식	20(16.9)	51(43.2)	4(3.4)	43(36.4)	118(100)

주) 표 중의 숫자는 빈도, ()의 숫자는 %

설문조사를 통해 말레이시아 화인의 민족정체성, 모국어 구사능력 및 사용빈도, 모국문화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즉, 화인은 말레이시아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것이 아니라,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능통하게 중국어를 구사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화인은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빈도 높게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가구는 물론, 혼례식 및 장례식에서도 모국문화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화인이 상대적으

로 강한 모국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그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과 모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IV.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와 모국과의 연계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디아스포라는 모국과 거주국에서 실시간 정보공유와 소통이 가능하며, 이는 또한 초국가시대 새로운 공동체 공간을 탄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시대에 디아스포라는 모국에 대한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모국과의 연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다음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영역에서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와 모국과의 연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정치적 연계

오늘의 말레이시아 화인은 이미 현지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류사회에 진출한 말레이시아 국민이며, 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소수민족인 화족(华族)으로 성장하여 확고한 국민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국민정체성은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7〉 말레이시아 화인의 국민정체성 질문사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질문항목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나는 말레이시아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3.64	.802	113
나는 화인이 말레이시아 현지사회에 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11	.990	114
말레이시아 현지 문화에 비호의적인 것은 화인의 잘못이다.	3.57	.986	114
화인은 말레이시아 현지문화를 많이 아는 것은 좋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2.67	1.904	114

도표에서도 나타나듯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질문사항은 각각 “말레이시아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현지사회에 융합되어야 한다”, “현지문화에 비호의적인 것은 화인이 잘못된 것이다”로 나타났다. 이는 화인이 말레이시아 국민으로서 국가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소수민족으로서 화인이 현지사회에 융합되고, 현지 문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화인은 말레이시아 현지문화를 많이 아는 것은 좋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질문에는 평균값이 2.67로 평균치 3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말레이시아 화인이 현지문화 수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말레이시아 화인은 비록 모국지향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말레이시아 국민으로서 강한 국민정체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화인의 이러한 이중정체성은 ‘민족’과 ‘국가’ 두 축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정하게 중첩되어 모국과 거주국을 넘나드는 다중정체성으로 표출된다.

현재의 말레이시아 화인은 모국과의 정치적 연계가 지극히 약화되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 화인은 이미 거주국 국적을 취득해 화교에서 화인으로의 신분전환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대 이전, 말레이시아 화인은 중국의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했었다. 1911년 신해혁명시기부터 제2차세계대전 종전까지 동남아 화인은 모국의 정치활동에 적극 가담하여 구국(救國)운동에 힘을 이바지하였다. 손문(孫文)은 동남아 화교를 “혁명의 어머니(華僑爲革命之母)”로 평가할 정도로 그들은 모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1937년 “7·7사변(七·七事變)” 이후 말레이시아 화인은 싱가포르중화총상회와 연합하여 “말레야싱가폴화교조국상병난민지원위원회(馬來亞新加坡華僑籌賑祖國傷兵難民大會委員會)”를 설립해 모국 지원에 나섰다. 1938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43개 국가 및 지역 화인들과 연합하여 “남양화교지원총회”를 설립함으로써 동남아 화인을 총동원하여 모국의 항일운동을 지지하였다(石滄金 2006, 38-39). 그러나 1950년대를 기점으로 말레이시아 화인사회와 모국과의 관계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관계 악화로 인해 화인사회도 점차 모국으로부터 이탈하여 거주국사회로 융합되었다. 특히 1950년대 중국의 거주국 지향적인 뿌리내리기(落地生根)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화인이 말레이시아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화교에서 화인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57년 기준 말레이시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총 1,003,831명인데, 그중 화인이 803,064명으로, 전체 국적취득자의 80%를 차지한다(石滄金 2006, 40). 따라서 1950년대 후반 말레이시아 국적을 취득한 화인은 이미 200만 명에 달해 전체 화인사회의 90%를 차지하였다. 화인이 현지 거주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그들의 국민정체성은 모국으로부터 거주국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화인 현지화의 촉매역할을 하였다.

1974년 말레이시아와 중국 수교이후, 특히 1978년 중국 개혁개방이후 말레이시아 화인과 모국과의 관계는 다시 강화되었으나, 기존의 정치적 관계는 이미 약화되어 경제 및 사회·문화적 연계만 구축된 현실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말레이시아 화인은 모국과의 정치적 연계가 아주 미약하다. 도표에서도 나타나듯이, 말레이시아 화인은 모국정치에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72.9%(86명)가 “중국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91.5%(107명)이 “중국 화교정당이나 화교단체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8〉 말레이시아 화인의 모국정치 관심도

질문사항	예	아니요	전체
나는 중국 정치에 관심 있다.	32(27.1)	86(72.9)	118
나는 중국 화교정당이나 화교단체에 참여한 적 있다.	10(8.6)	107(91.5)	117(100)

주) 표 중의 숫자는 빈도, ()의 숫자는 %

2. 경제적 연계

정치적 연계와 달리, 말레이시아 화인과 모국인 중국의 경제적 연계는 아주 밀접하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경제권의 부상이 바로 화인과 모국과의 경제적 연계의 표출이다. 중화경제권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에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화인경제권까지 아우르는 지역경제협력체이다. 중화경제권은 이미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거대한 경제 블록으로 부상하였다(리단·김혜련 2012, 131).

말레이시아 화인과 모국의 경제적 연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0년대 이전, 화인과 모국의 경제적 연계는 주로 모국 지원과 가족 생계유지를 위한 송금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말레이시아 화인은 대부분 화공(華工) 신분으로 동남아로 이주한 계약노동자이다. 그들은 돈벌이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찾았으며, 모국으로의 송금은 그들이 가족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해외 송금은 외환의 가장 중요한 자원 요소의 일부이다. 물론 송금은 대부분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개인자산이지만 모국에 있는 수령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모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한편, 현재의 화인과 모국의 경제적 연계는 대규모 화상 자본 유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화인과 중국의 경제 네트워크는 1974년 양국 수교이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40여 년의 발전 끝에 현재는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989년 말레이시아 대중국 투자는 4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202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397만 달러에 이르렀다. 2011년부터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으며, 2013년 말레이시아 전체 해외투자의 72.5%는 중국시장이 차지하게 되었다(中国商务部).

〈표-9〉 말레이시아 대중국 투자 규모

(단위: 백만달러)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투자액	381.8	340.5	237.7	202.9	263.0	367.9	251.0	385.0	361.3	451.2	397.3

출처: 郑达, 2009. “改革开放以来马来西亚华商对华直接投资.” 『当代中国史研究』16(2), 88.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이러한 경제교류 활성화 뒷면에는 화인이 중요한 촉매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교량이자 중개자이며, 말레이시아 기업이 중국시장을 개발하는 개척자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시장으로 유입한 말레이시아 자본 대부분은 화상 자본이며, 그들은 교향(侨乡)¹⁾이라고 불리는 화인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화인은 모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양국의 무역관계는 물론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우호적 관계도 도모하였다.

말레이시아 화인기업은 대부분 상하이(上海), 푸젠(福建), 광둥(广东)을 중심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그들만의 화인 상권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출신지역과도 중첩된다. 말레이시아 화인은 대부분 푸젠, 광둥, 광시, 윈난지역 출신으로, 이 지역에는 현재까지도 그들의 친인척이 정착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화인은 그들의 고향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향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듯 화상자본의 유입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며, 이는 고향 발전은 물론, 모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예컨대,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는 푸젠성에서 총 95개 기업을 설립하여 11,87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郑达 2009, 91), 푸젠성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이러한 말레이시아 기업의 대부분은 화인기업이다.

말레이시아 화인과 모국과의 경제적 연계는 중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착하는 거주국에서도 연결되고 있다. 화인은 중국의 성공 경험을 말레이시아로 도입함으로써 거주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Iskandar) 경제개발구는 바로 중국 선전(深圳), 샤먼(厦门), 주하이(珠海) 등 경제특구를 벤치마킹하여 설립한 남부경제특구로, 화상이 핵심이 되어 중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거주국을 발전시키고 있다.

요컨대, 말레이시아 화인과 모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는 아주 밀접하며, 향후에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 전망된다. 그들은 화상을 중심으로 모국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을

1) 교향(侨乡)은 화교·화인의 고향, 즉 그들의 출신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중국 푸젠(福建), 광둥(广东), 광시(广西), 윈난(云南), 하이난(海南) 등은 대표적 교향이다.

이바지 하고 있으며, 특히 고향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기반으로 출신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화인은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거주국으로 도입시켜 양국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쌍방향으로 경제적 연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3. 사회·문화적 연계

말레이시아 화인과 중국의 사회·문화적 연계는 인적왕래, 문화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다민족·다문화국가 말레이시아에서 화인은 그들만의 화인단체를 구성하고,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전통명절과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있다.

이주의 시대가 도래되고 인구이동이 일반화됨에 따라 화인의 초국가적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협력이 가속화되자 화인의 모국방문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방문목적도 다양해졌다. 동향회, 화인협회 등 화인단체의 구성원으로 중국정부나 지자체의 초청에 의해 모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가장 큰 교향인 광둥성은 2000년부터 “광둥동향연합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광둥 출신 화교·화인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한다. 2002년 광둥성해외교류협회, 광둥해외연합회, 광둥성귀국화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차 대회에서는 2,000여개의 화인단체가 참석하여 모국을 방문하였는데, 그 중 50여개 단체는 말레이시아 화인단체였다(广东侨网).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 화인은 중국 정부나 지자체의 초청으로 모국을 방문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른 한편, 해외에는 4,500여만 명의 화인디아스포라가 산재해있지만, 중국에는 또한 약 3,000만명의 귀환화교(归侨)가 모국에 정착하고 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해외 화인은 모국에 귀환하여 정착한 친인척과 연락함으로써 모국과의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화인도 마찬가지로 모국 정착 친인척과 이러한 개인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34.4%(41명)는 모국에 친인척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과 모국 친인척의 접촉빈도와 연결방식은 아래 도표와 같다.

〈표-10〉 최근 6개월 간 말레이시아 화인의 모국 친인척 접촉빈도

질문사항	1~5회	한달에 1~2회	일주일 간 1회	한달 간 1회	전체
빈도(명)	18	11	3	7	39
비율(%)	46.2	28.2	7.7	17.9	100

〈표-11〉 말레이시아 화인과 모국 친인척의 연락방식

질문사항	전화	메일	인터넷	SNS	방문	기타	전체
빈도(명)	4	3	17	1	7	7	39
비율(%)	10.3	7.7	43.6	2.6	17.9	17.9	100

〈표-10〉과 〈표-11〉에서 나타나듯이, 말레이시아 화인은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여전히 모국에 정착하고 있는 친인척과 인적왕래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인터넷(43.6%)을 활용해 연락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화인은 단체 혹은 개인적으로 여전히 모국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말레이시아 화인과 모국의 사회문화적 연계는 그들의 문화 교류에서도 잘 나타난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지역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화인 문화가 활성화된 국가이다. 말레이시아 화인은 1984년부터 해마다 “화인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그들의 민족정체성을 고양시키는 한편, 현지인에게도 화인문화를 홍보하고 전파시키고 있다. “화인문화축제”는 한 달간 진행되며, 사자춤(舞獅)·전통극(唱戏) 등 공연이나 특강, 대토론회의 방식으로 화인문화를 홍보하고 있다. 화인은 모국문화를 거주국에 전파하는 전도사로서 문화교류를 통해 모국과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화인은 모국 문화에 친밀감을 느끼며, 현지에서도 모국문화를 쉽게 접하고 있다.

〈표-12〉 말레이시아 화인의 모국문화 친밀도

질문사항	예	아니요	전체
나는 중국 문화에 친근감을 느낀다.	86(72.9)	32(27.1)	118(100)
나는 중국 드라마, 영화를 자주 보고 있다.	81(69.2)	36(30.8)	117(100)
나는 중국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고 있다.	74(63.2)	43(36.8)	117(100)

주) 표 중의 숫자는 빈도, ()의 숫자는 %

위의 도표에서도 나타나듯이, 말레이시아 화인은 모국문화에 친근감을 느끼며, 모국문화와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문화에 친근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72.9%(86명)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69.2%(81명)가 “중국 드라마, 영화를 자주 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3.2%(74명)가 “중국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말레이시아 화인은 거주국에서 모국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중국과의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V. 결 론

중국 역사에서 배출된 화인디아스포라는 근대화시기 이전부터 동남아시아에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약 3,348만 명의 화인이 이 지역에서 뿌리 내려 거주하고 있다. 그 중 다민족·다문화국가 말레이시아에는 약 640만 명의 화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현지적응을 통해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주류사회에 진출하였다. 말레이시아 화인은 대부분 중국 푸젠(福建), 광둥(广东), 광시(广西), 하이난(海南)지역 출신이며,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화인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와 모국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와 모국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화인은 비록 말레이시아 국민으로서 확고한 국민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화인으로서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능통하게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비율 높게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화인은 완전히 거주국사회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모국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원주민과 다른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음식, 가구는 물론, 혼례식 및 장례식에서도 모국문화를 선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랜 이주역사를 자랑하는 화인은 말레이시아 국민인 동시에 모국지향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 말레이시아 화인은 이러한 모국지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모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연계를 검토한 결과, 정치적 측면에서 화인은 말레이시아 국민으로 모국과의 정치적 연계가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화인과 모국의 경제적 연계는 아주 밀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향후에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 전망된다. 아울러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화인은 모국과의 빈번한 인적왕래, 문화교류를 통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김혜련. 2014.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화인디아스포라의 현지사회 정착과 화인정책 비교” 『평화학연구』 15(5), 201-222.
- 리단 · 김혜련. 2012. “중화경제권의 부상과 의미.” 『디아스포라연구』 6(2), 131-152.
- 정영훈. 2010. “민족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정체성.” 『민족학연구』 9(1), 1-30.
- 임채완. 2008. “지구화시대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활동과 모국: 동남아 화인과 중국조선 족에 대한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48(1), 243-266.
- 홍재현. 2008a. “말레이시아 화교의 특성.” 『中國人文科學』 38, 427-444.
- . 2008b. “말레이시아 종족폭동과 화교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中國人文科學』 40, 619-635.
- P.Stalker. The No-Nonsense Guide to International Migration. 김보영 옮김. 2004. 『국제이주』. 서울: 이소출판사.
- William Safran. 1991. Diaspora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1(1).
- 陈俊林. 2012. “马来西亚华文媒体对中华文化传承的贡献.” 『东南亚纵横』 2012年第5期, 55-59.
- 何西湖. 2004. “马来西亚华人政策的演变和发展.” 『广西民族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4年12月, 64-70.
- 骆莉. 2002. “马来西亚多元文化社会中的华人文化.” 『东南亚纵横』 2002年第7期, 20-23.
- 廖小建. 2008. “马来西亚华人经济的发展与影响.” 『亚太经济』 2008年第3期, 102-106.
- 王焕芝 · 洪明. 2011. “马来西亚华文教育政策的演变及未来趋势.” 『福建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69, 191-195.
- 石沧金. 2006. “试析马来西亚华人社会与祖籍国关系的演变：以马来西亚华人社团为例.” 『华侨华人历史研究』 2006年第2期, 37-42.
- 许梅. 2004. “独立后马来西亚华人的政治选择与政治参与.” 『东南亚研究』 2004年第1期, 58-63.
- 郑达. 2009. “改革开放以来马来西亚华裔对华直接投资.” 『当代中国史研究』 16(2), 85-93.
- 郑一省 · 叶英. 2011. “马来西亚华人与马来人共生态势初探.” 『东南亚南亚研究』 2011年第2期, 20-25.
- 中國僑辦. <http://qwgyzyj.gqb.gov.cn/yjyt/155/1830.shtml> (검색일: 2015.01.02.)
- 中國僑網. <http://www.chinaqw.com/> (검색일: 2015.01.02.)

● 투고일: 2014. 2. 1. 심사일: 2015. 2. 3. 게재확정일: 2015. 2. 9.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Chinese Diaspora in Malaysia and Motherland

Jin, Hui Li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out 6.4 million of Chinese live in Malaysia where is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country and they occupy 24.6 percent of the Malaysian population. The majority of Chinese in Malaysia came from Fujian, Guangdong, Guangxi, and Hainan in China and perform Chinese Diaspora community with collective memory.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Chinese diaspora in Malaysia and motherland, started from critical mind on links between diaspora and motherland, through conducting a surve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search, even though Chinese diaspora in Malaysia entered into mainstream society through local adaptation, they still not only maintain ethnic identity but also inherit and develop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e. Based on the motherland directivity, Chinese diaspora have not a strong political connection with motherland but maintain a close connection with China in economic and sociocultural aspects.

〈Key words〉 Malaysia, Overseas Chinese, Motherland directivity, Relations with Motherland.